

독립정신

48호 2009년 11. 12월호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의한(金毅漢)과 정정화(鄭靖和)
임시정부와 함께 청춘을 보낸 독립운동가 부부

이달의 독립운동
조선민족대동단의 역사적 성격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최우수작
나는 독립군가를 부를때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

특별기획

90주년
대한민국애국전쟁과

임시정부가 꿈꾸는 나라

임시정부가
꿈꾸는 교육, 문화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독립정신
사진으로 보는



이시우 | 사진작가

한줌 재로 이역만리 수이푼강에 뿌려진
 이상설선생의 유허비에
 우수리스크의 여명이 깃듭니다.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獄中所感 (옥중소감)

修堂 鄭靖和 (수당 정정화)

餘若米盡入獄中 (여약미진입옥중)
 老軀衰弱向息存 (노구쇠약구식존)
 半生所事爲革命 (반생소사위혁명)
 今日受辱果是報 (금일수욕과시보)
 國土兩斷思想分 (국토양단사상분)
 玉石交友各自是 (옥석교우각자시)
 鐵窓地板無日光 (철창지판무일광)
 陰氣襲入惡臭生 (음기습입악취생)

아직껏 고생 남아 옥에 갇힌 몸되니
 늙은 몸 쇠약하여 목숨 겨우 붙었구나
 혁명 위해 살아온 반평생 길인데
 오늘날 이 굴욕이 과연 그 보답인가
 국토는 두쪽 나고 사상은 갈렸으니
 옥과 돌이 서로 섞여 제가 옳다 나서는구나
 철창과 마룻바닥 햇빛 한 점 없는데
 음산한 공기 스며들어 악취를 뿜는구나

一日兩餐一國麥 (일일양찬일국맥)
 起居動作依號令 (기거동작의호령)
 夜深寒氣臥板上 (야심한기외판상)
 菊秋之節尚麻衣 (국추지절상마의)
 獄吏所行亦可笑 (옥리소행역가소)
 開口言所辱人家 (개구언소욕인가)
 舉手所作加鞭撻 (거수소작가편달)
 與我無有三生怨 (여야무유삼생원)

하루 두끼가 한줌의 보리며
 일어서고 앉음이 호령 한마디에 달렸네
 깊은 밤 찬 바람에 마루에 누웠는데
 가을이 늦어도 걸친 건 모시옷 뽀
 옥리들의 소행이 우습기만 하나니
 입 벌리면 사람에게 욕이나 퍼붓네
 손 들어 하는 짓은 채찍질이 고작이니
 나하고 전삼생에 무슨 원한이 있단 말인가

빛은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인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아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칠혹의 밤, 압록강에 거룻배를 띄우고 삼엄한 국경을 넘나들어야 했던 조국의 운명이 있었다.
 한말 대한협회 회장이며 조선민족대동단 총재인 동농 김가진 선생의 자부이자, 우국지사 성엄 김익한 선생의 내자이기도 한, 어여쁜 조선의 어머니 수당 정정화 선생.
 그의 고난에 찬 발자욱들이 오늘의 역사 한페이지 속에서 아프게 빛난다.
 2연의 칠언율시 형태를 지닌 한시 「옥중소감」은 정정화 선생의 파란만장한 대서사 회고록인 『장강일기』를 1987년에 발간할 때, 아드님인 김자동 선생이 번역한 시다.
 정정화 선생의 단장의 노래 「옥중소감」은 우리들 후생에게 더 감내해야 할 오욕의 역사가 있음을 증언한다.
 아직도 강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분단과 동족상쟁의 시간들이 그것이다.
 1950년 부군인 성엄은 납북되고, 선생이 부역죄로 이승만정부에 투옥된 시간 속에서 태어난 시 한편이 오늘 우리들을 더 아프게 한다.
 그리하여 수당 정정화 선생의 역사가 아프기에 오늘 우리 역사가 더 의로울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는다.

■ 시선정 : 홍일선 (시인, 대운하반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공동연대 공동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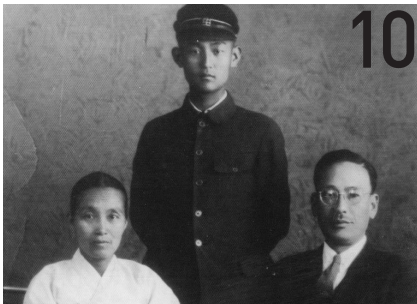


2009 11*12

통권 48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정운찬 씨와 친일의 논리 | 신준수



06 이 달의 독립운동가
김의한과 정정화 | 김학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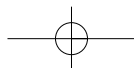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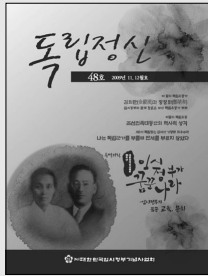
12 이 달의 독립운동
조선민족대동단의 역사적 성격 | 김형묵

18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임시정부가 꿈꾼 문화와 교육 | 강내희



24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나는 독립군가를 부를 때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
| 김건우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조영빈, 정승임, 홍용희, 인솔지, 조수정, 조정의
 편집·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 31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그림자 군단〉, 레지스탕스의 어떤 기억들
 | 이두희
- 35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관객들과 길게 호흡하고 싶다
 | 조수정 박상희
- 39 청년특집 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
 백범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VI
 | 조정의
- 43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 59 임정서가
 백범일지



■ 권두언

정운찬 씨와
친일의 논리



신준수
편집위원 / 역사넷 대표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충청도 공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립대학교 총장을 거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은 사회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덕’을 입었다.”

‘은덕’이라니, 정말 그랬다. 아들은 이중국적자였고, 군대를 면제받았으며,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의 신분으로 민간 기업의 고문 및 이사로 지내며 짐작컨대 수 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세금도 안 내고, 뭐, 나중에 냈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거짓말(위증) 몇 가지 한 것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다.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의 징표가 되어야 할 논문이 이중 게재 내지는 다중 게재하고 짜깁기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쯤에서는 듣는 사람도 말문이 막힌다. 그간에 우리 사회가 그에게 바쳐온 ‘존경’의 근거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었는지 허탈할 뿐이다. 법이나 도덕성 또는 정직성이라는 굴레쯤은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서도 어김없이 증명되어버린 것이다.

어쩌면 도덕성이니 정직성이니 하는 것들을 그런 공직자들에게서 구하는 일이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를 변호하는 논리대로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그런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 정도의 흠결을 갖는 것은 불가피했을지도 모르니까.

다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으로서는 별로 문제로 삼지조차 않는 '친일'이라는 것 말이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청문회에 섰던 사람이 보여준 여러 불쌍사나운 행태들이 엄혹한 일본 제국주의 강점의 시절 우리 사회의 지식인 혹은 지도자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했던 짓들과 너무도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친일을 했던 사람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대다수 민중의 희생 위에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영향력 있는 공인이었고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직과 도덕성은 대충 버리고 사소한(?) 불법 내지는 탈법을 통해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 위에 서있다. 우리 사회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현실을 통해 거꾸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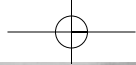
친일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 권력의 강제 앞에서 불가항력이었다', '한 때의 친일로 한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친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념이나 경쟁 심리 따위의 이해관계가 친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 참 익숙한 말들이다.

정운찬 씨의 그간의 의심스런 행적들이 과연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을까. 총리의 인사 청문회에서 정운찬 씨에 대해 거론된 것들이 그를 매도하기 위

해서였을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과 정직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 뭔가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일까.

해방이 된 지 60년도 더 지났고 21세기가 된 지 이미 10년이 지나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친일을 비판하고 또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정직과 도덕성쯤은 헌신짝 처럼 버리고 불법과 탈법 같은 것은 성공의 발판쯤으로 여기며 대다수 사람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내모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그들의 그런 행태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자숙하고 절제하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우리는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한다.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양심대로만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고. 사회의 지도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가운데 그 정도 흠결없이 살아올 수 있었겠냐고.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권력자와 가진자의 공생 관계는 갈수록 끈끈해지며, 못사는 사람은 대를 이어 못살아야 한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낱 뜬구름에 불과할 것이다. (1)



| 이 달의 독립운동가 |

김의한(金毅漢)과 정정화(鄭淸和)

- 임시정부와 함께 청춘을 보낸 독립운동가 부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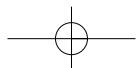


김학민
분회 이사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감가진 일가

동농 김가진 선생은 조선 후기 권력을 독점하였던 안동김씨 집안에서 태어나 황해도관찰사, 충청남도관찰사,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등을 지낸 구한말의 거물이다. 그러나 김가진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병탄되자 자괴심에 두문불출하다가 1919년 3.1만세운동을 계기로 비밀결사 조선독립대동단을 결성, 그 책임자인 총재로 취임했다. 그리고 대동단 활동이 일제에 의해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자 74세의 고령으로 상해에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참여했다. 김가진은 일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더라도 조용히만 있으면 국내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터인데, 스스로 가시밭을 택한 것이다.

김의한과 정정화는 김가진이 걸었던 조국광복운동의 험로를 함께 하고 뒷바라지한 아들이고 며느리이다. 두 사람은 김가진이 상해에서 77세로 한많은 생을 마감한 후에도 백범 김구 선생을 도와 조국광복이 되기까지 중국 대륙 수만리를 헤매었다. 김의한은 임정의 실무요원이자 김구 선생의 비서로 일하였고, 정



정화는 홀로 계신 임정 요인들의 식사 뒷바라지에서부터 독립운동자금 모금, 한국독립당 참여, 대한애국 부인회 조직 등 임정에 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여 ‘임정의 잔 다르크’ 로까지 불리었다. 김가진, 김의한, 정정화 일가야말로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전형인 것이다.

김의한은 1900년 1월 8일, 김가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의한은 1914년 매동(梅洞)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운 뒤, 1917년부터 중동(中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김가진은 조선 말 개화파 관료로서 보고 들은 견문과 식견을 줄곧 아들에게 교육시킨 듯하다. 그는 아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얻었으며, 이제 조선에게도 독립의 기회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곧 아들에게 국제정세를 알려주며 민족의식을 일깨워준 것이다.

손위 처남 정두화도 김의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보인다. 정두화는 김의한의 부인 정정화의 오빠로 김가진과 뜻이 맞아 조선민족대동단 조직에 거금을 대기도 했고, 또 이로 인해 대동단 사건으로 옥살이도 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친가와 처가의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민족의식으로 인하여 김의한은 1919년 부친이 조선민족대동단을 조직할 때 적극 가담하여 총재의 참모이자 조직원이 되었고, 그해 10월 김가진의 상해 망명도 밀착 수행한 것이다.

정정화는 1900년 8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수원유수를 지낸 정주영(鄭周永)과 이인화 사이의 2남 4녀 가운데 셋째 딸이었다. 부친은 충남 예산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정화는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귀여움뿐 아니라 두 오라버니와 언니들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 부친의 완고한 반대로 어깨너머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공부였지만, 어려서 한학을 익혀 신문 정도는 불편 없이 읽었다.

정정화는 11살이 되던 1910년 가을 김가진의 3남인 동갑내기 신랑 김의한과 혼인하였다. 김의한과 결혼하면서 정정화는 세상 물정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화파 관료였던 시아버지와, 그 집안 분위기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남편 김의한의 영향이 컸다. 김의한은 아버지 김가진으로부터 교육받은 국제정세와 민족의식을 정정화에게 전해 주었다.

김가진과 김의한의 망명, 정정화의 망명

1919년 3·1운동의 발발과 그 외중에서 대동단 총재로 추대된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김의한이 상해로 망명한 사건은 정정화의 생애에서 하나의 큰 전기였다. 이를 계기로 정정화 또한 상해 망명과 독립운동 투신을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정정화는 1920년 1월 초순 서울역에서 의주행 열차를 타고 상해로 망명길에 올랐다.

1920년 머느리 정정화까지 상해로 망명하여 오자 김가진 일가는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올

| 이 달의 독립운동가 |



▲ 좌로부터 김의한, 정정화, 아들 자동

랐다. 구한말 명문 일가가 임시정부 진영에 가담했으나, 독립운동 진영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홍보효과가 높았고 이로 인해 사기가 추천했지만, 일제로서는 조선의 명문거족 출신의 기득권자조차 일제의 통치에 반발하는 것으로 대내외에 보이게 되었으니 무척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정정화는 1946년 귀국하기까지 망명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임정 요인들의 뒷바라지에 바쳤다. 백범 김구는 물론 석오 이동녕, 성재 이시영 등 임정 요인들의 식사 수발은 물론, 임정의 사무도구 가운데 정정화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임정 요인들의 고달픈 망명생활은 정정화가 있음으로서 위안이 되었고, 27년간이라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임시정부 역사의 뒤안에는 정정화가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정정화의 상해 합류로 김가진 일가는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간의 안정을 찾았지만, 당시 임정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이를 보다 못한 정정화의 제안으로, 정정화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밀파되었다. 당시 임정 법무총장으로 있던 예관 신규식과 시아버지 김가진의 지시, 남편 김의한의 조언에 따라 정정화는 1920년 3월 초순 상해를 출발하여 국내로 향했다. 국내 잠입 경로는 1919년 7월에 시행되어 국내외로 가동되고 있었던 임시정부의 비밀 지방행정 및 연락조직인 연통제를 따랐다.

이후에도 정정화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5차에 걸쳐 국내에 잠입했다. 이 시기 임정은 그야말로 간판만 있는 형세였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과 대립으로 임정의 위상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외 동포들의 임정에 대한 재정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 정정화가 어렵사리 모금해온 자금은 잠시나마 임정의 숨통을 터 주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정은 1925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중심제 정부를 내각책임제 정부인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지도급 인사들의 외면으로 정부 조각조차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1926년 말 국무령에 취임한 김구는 집단지도체제 형태인 국무위원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근근이 임정의 명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정화는 1929년 7월 여섯 번째로 다시 고국 땅을 밟았고, 이후 1년 6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다가 1931년

“

중국인들이 한인들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의 길거리에서도 양국민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의열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하여 1931년 말 임정의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었고, 김구가 그 단장을 맡았던 것이다.
 1932년 1월 이봉창 의거와 4월 윤봉길 의거는 한인애국단이 이루어낸 쾌거였다.

”

초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이즈음 김의한은 한인청년동맹에 참여, 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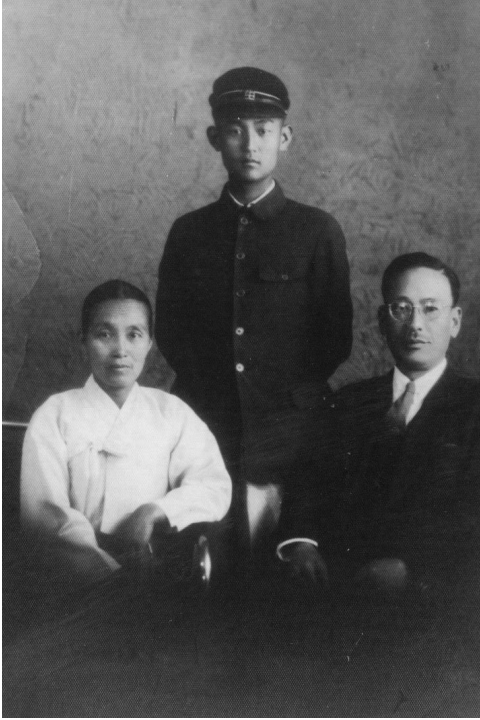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받혀 온 젊은 부부

1930년대 들어서자 동북아 주변 정세가 변화하여 독립운동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31년에 연이어 발생한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이 주된 요인이었다. 길림성 만보산에서 한중 농민간에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일어났을 때, 일제의 이간책과 악선전으로 국내 각 도시에서 중국인들을 습격 살해하는 일이 빈발하였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중국인들이 귀국하였고, 그로 인해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적대행위가 확산되고 있었다.

중국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임시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나 한중 양 민족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들 사변 이후 중국인들이 한인들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의 길거리에서도 양국민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의열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하여 1931년 말 임정의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었고, 김구가 그 단장을 맡았던 것이다. 1932년 1월 이봉창 의거와 4월 윤봉길 의거는 한인애국단이 이루어낸 쾌거였다. 이들 의열투쟁으로 말미암아 한중 양민간의 갈등과 대립은 일거에 불식되었고, 항일투쟁의 연대 고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 이 달의 독립운동가 |



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는 여러 해 동안 상해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프랑스 조계 당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말았다.

이봉창 의거를 계기로 상해사변이 발생하여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한 상태에서 윤봉길 의거가 결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의 승전 축하 행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윤봉길 의거는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조계 당국이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게 하였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한국 독립운동자들에게 즉시 상해를 탈출하라고 통고하였던 것이다.

1932년 5월 1일 김의한과 정정화는 상해를 떠나 기차편으로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여기서도 정정화는 석오 이동녕 등 임정요인들을 모시기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김의한은 중국 정부와 교섭을 맡고 있던 박찬익의 주선으로, 신강성 성장을 지냈던 임공(林兢)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전원공서에 취직했다. 전원공서는 중앙정부에서

과견하는 지방 행정관리였다. 김의한과 정정화는 1934년 봄 임지인 강서성 풍성현에 도착하였다.

김의한과 정정화는 풍성에서 1년쯤 있다가 다시 무령현으로 이주하여 3년 가까이 생활하였다. 이 시기 정정화는 1935년 11월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창당된 한국국민당에 가담하였다. 김의한과 정정화는 1938년 2월 강서성 무령을 떠나 호남성 장사로 가서 임시정부와 다시 합류하였다.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김의한은 임시정부 선전위원회의 선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총괄하게 되었다.

일제는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기화로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거점과 병참선'으로 이루어지는 대륙 침략작전으로 중국 전역을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정세 변화에 따라 독립운동단체들은 크게 두 갈래로 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대일항전을 준비하여 갔다. 하나는 1937년 8월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이 중심이 된 우파계열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결성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1월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이 중심이 된 좌파계열의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이었다.

한편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강화하면서 독립운동의 활동기반을 갖추어 갔다. 1940년 5월 민족진영의 3당을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9월에는 군사조직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개헌을 단행하여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함으

로써, 당(한국독립당), 정(임시정부), 군(한국광복군)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로써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해 갔던 것이다.

이때 김의한과 정정화는 한국독립당의 창립 당원으로 가입, 김의한은 감찰위원과 상무위원을 맡았고, 광복군 조직훈련과장, 임시정부 외교연구위원으로 일하였다. 같은 해 6월 한국독립당의 여성조직으로 한국여성동맹이 기강에서 창립될 때 정정화는 간사로 선출되었고, 1943년 대한애국부인회가 재건될 때는 훈련부장직을 맡아 일하였다.

조국광복, 민족주의자의 좌절

김의한과 정정화는 일제의 패망을 중경 인근 토교에서 맞이하였다. 광복 후 임정 요인들은 11월 5일 중경을 출발하여 상해에서 20여일 지체한 후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하였다. 김의한은 김구 선생을 수행하여 먼저 떠났고, 정정화는 임정 요인들이 중경을 떠난 뒤에도 토교에 남아 12월 한 달 동안 뒤처리를 마치고, 이듬해 1월 하순 상해로 갔다. 그 뒤 5월 9일 미군이 제공한 LST 수송선을 타고 사흘의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25년만에 조국땅을 밟았던 것이다.

한국 이후 김의한과 정정화는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민족국가 수립 운동을 전개하던 김구와 한국독립당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다. 김의한은 1948년 김일성과의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이룩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북행을 결심한 김구 선생을 수행하여 평양으로 갔다. 정정화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부통령에 취임한 성재 이시영이 감찰위원회의 감찰위원으로 추천하였지만 취임하지 않았다.

김의한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못하다가 1951년 6.25 동족상잔 시기 납북되어 생사를 확인치 못하였는데, 2006년 10월 재북임시정부요인 후손 성묘단의 평양 방문시 1964년 10월 9일에 서거하여 평양 근교 재북인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정화는 1991년 서울에서 서거하였으며,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두 사람의 공훈을 기리어, 정정화에게는 198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김의한에게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㉔

| 이 달의 독립운동 |

조선민족대동단의 역사적 성격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3·1운동을 계승한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가교적(架橋的) 역할을 담당한 비밀결사

조선민족대동단(이하 민족대동단으로 표기)은 3·1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비밀결사체였다. 전협(全協, 본명은 全國煥)·최익환(崔益煥) 등은 노정객인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을 총재로 추대하는 가운데 이를 조직했다. 목적은 3·1운동 확산과 국내외 항일세력을 결집하여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족대표 33인'은 곧바로 투항하는 등 효과적인 만세운동을 제대로 주도할 수 없었다. 반면 학생·노동자·농민 등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시위운동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부녀자·기생 등도 참가함으로써 대중투쟁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3·1운동의 민족해방운동사상 '분수령적' 의미 부여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민족대동단 단원들은 각종 선언문을 발간하는 등 3·1운동의 지방으로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민족적인 역량 결집은 이러한 가운데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다양한 인적 구성

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으로 계승되는 등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은 소중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국내 정세 보고와 후원 등은 연통제(聯通制) 설치로 이어졌다. 민족대동단의 독립운동사상 위상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의 대동단결에서 다양한 독립운동방략 모색을 위한 기틀

3·1운동 지방으로 확산되는 4월 중순경 최창익과 전협은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3·1운동 이념의 발전적 계승과 아울러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조선 민족은 2천만 성충(誠忠)과 묵계(默契)의 발동에 따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인류 대동의 새로운 요구에 응하려 하며 세계평화 대원칙을 준수하고 정의·인도의 영원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앞서 조선독립을 선포하였다. 그 관계는 이미 국제적이며 또한 인류적이다. 우리 민족은 추호도 남을 배척하려는 생각이 없으며公道(公道)와 정리(正理)를 존중하고 광명정대한 행동과 평화·선량한 방법으로서 여러 나라의 정의·공론의 결정에 기대하는 바이다. 일본은 재래 착오를 개혁하지 않고, 인류 양심의 희망을 유린하고 세계평화의 위신을 무시하여 비인도적인 참독(慘毒)한 무력으로써 우리 문명적 생명력의 발작을 학살하는 것은 인류가 용인할 수 없는 공분된 일이다. 하물며 우리 2천만 민족은 죽음을 맹세한 최후의 결심을 했다.” 즉 독립·평화·자유는 궁극적으로 이 단체가 지향하는 바였다.

행동 강령은 「방략(方略)」이라는 이름으로 최익환에 의하여 입안되었다. 정면 방침과 이면 책략으로 분리 구성하였다. 정면 방침은 평화와 선량을 기초로 하고 이면 책략은 저들의 완악(頑惡)하고 불성(不誠)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비밀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전 민족을 통일하고 고유의 일정 세력을 부식(扶植)하여 외래의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 ① 단조(檀祖)가 창업한 조선의 일대 교육을 보급하고 세계의 새로운 추세와 일치하여 문명된 행동을 주로 하는 정신력을 실현할 것. 국민 각개의 취미와 정경(情景)의 집합인 각 단체의 표적을 보중(保重)하고 건전·충량(忠良)한 단체를 수립한다.
- ② 국민 행위의 주뇌(主腦)이며 신경선(神經線)·이목·수족 등이 되는 비밀기관을 설치한다.
- ③ 국민사교동맹(國民社交同盟)을 형성하고 적에 대한 사교 관계를 폐지한다. 단 개인에 대하여는 은혜와 위엄을 함께 베푼다.

| 이 달의 독립운동 |



▲ 조선민족대동단의 총재를 맡았던 동농 김가진

④ 국민경제동맹을 형성하여 유무 상통하고 수화상제(水火相濟)한다. 또 적에 대하여는 경제관계를 중지하고 금전의 대차, 물질의 수요, 식료·원료 기타 일체의 공급을 단절한다.

둘째, 열국의 교의(教義)를 두루 살펴서(通覽) 이웃 나라들과는 우의(友誼)를 맺어 적을 독립의 궁지에 떨어뜨린다. 국제적인 연대를 위한 방안은

- ① 적의 세계적 침략 음모를 저지·공격하고 인류 공동의 정의·인도와 평등·자유를 실행·확장하여 영국의 동정과 원조를 얻는다.
- ② 미국의 도의적 방침과 경제적 발전에 상호 순응하여 진출한다.
- ③ 중화민국과 순치(脣齒)의 우의를 맺고 공수동맹을 맺는다.

셋째, 일본 인민으로 하여금 정의와 인도를 자각시키고 비인도적인 정부를 타파·개조하여 우방으로서 신교(新交)를 출현시킨다. 이에

- ①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일본 민중의 여론을 파열시킨다.
- ② 경제적 곤궁(困窮) 특히 식량·원료와 조선에 있는 경제적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질서를 교란시킨다.
- ③ 비인도적인 정부 발호(跋扈)의 반동인 사회 폭발의 대전복·대개혁을 실행한다.

민족대동단의 주요 활동은 3·1운동 방식과 유사한 독립의식 고취를 위한 선전활동에 집중되었다. 물론 민족대동단 본부 상해로 이전과 의친왕(義親王) 상해망명계획도 '제2회 독립만세시위'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추진되었다.

조직 체제는 중견기관과 부설기관으로 양분했다. 중견기관은 영구히 존치하는 반면 부설기관은 시국의 추이에 따라 수시로 존폐하였다. 즉 부설기관은 중견기관의 결정사항을 직접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총재 휘하에 둔 중견기관은 통재부(統宰部)·추밀부(樞密部)·상무부(常務部)·외무부·재무부·무정부(武政部) 등 6부였다. 중견기관 감독하에 설치되는 부설기관은 국민의사회를 비롯하여 민권위원회·통신위원회·제도연구위원회·기관신문사·국민대회·국민외교위원회·국민경제동맹회·의용단·군인교육회 등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 국민의사회는 지방·지역단체와 종교단·교육단·유림단·진신단(縉紳團)·군인단·상공단·청년단·노동단 등을 조직하도록 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일제의 탄압으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각 계층을 망라하려는 의도는 대동단결에 의한 독립의식 고취와 민족해방운동을 양양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전활동을 통한 일제 침략상 폭로와 민족의식 고취

민족대동단의 주요 활동은 3·1운동 방식과 유사한 독립의식 고취를 위한 선전활동에 집중되었다. 물론 민족대동단 본부 상해로 이전과 의친왕(義親王) 상해망명계획도 '제2회 독립만세시위'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추진되었다.

발행한 주요 선전물은 파리강화회의와 미국 윌슨대통령에게 각각 우리의 독립을 주장한

| 이 달의 독립운동 |

국치기념일 만세시위는 청년외교단과 함께 추진한 표면활동이었다.
 단원인 나창헌(羅昌憲) 주도로 전개된 이날 시위는 종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북악산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 태극기가 게양되는 등 독립만세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천장절에 즈음한 독립만세시위는 이 단체가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본부 상해로 이전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대동신보」 발간에 따라 일제경찰은 민족대동단 실체를 파악한 후
 포위망을 압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총재 김가진은 10월 10일 상해로 망명을 단행하였다.

「진정서」, 단체 설립을 천명한 「선언서」, 전 국민에게 민족적인 각성을 촉구한 「경고문」·
 「등교학생 제군에게」·「일본국민에게 고함」 등이었다. 이는 단원은 물론 국민·학생 등에
 게 배포되었다. 1919년 8월 10일 기관지로 간행된 「대동신보」는 단체 설립 배경과 과정 등
 을 밝혔다. 이처럼 대부분 내용은 민족대동단 존재를 알리기 위한 대외선전용이었다.

독립만세시위 계획은 1919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과 10월 31일 천장절(天長節)에 거행하
 려다 11월 28일로 연기되었다. 이는 각종 단체와 연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려 한 점
 에서 주목된다. 특히 후자는 민족대동단의 힘을 결집시키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국치기념일 만세시위는 청년외교단과 함께 추진한 표면활동이었다. 단원인 나창헌(羅昌
 憲) 주도로 전개된 이날 시위는 종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북악산을 비롯한 서
 울 곳곳에 태극기가 게양되는 등 독립만세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천장절에 즈음한 독립만세시위는 이 단체가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본부 상해로 이전 계
 획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대동신보」 발간에 따라 일제경찰은 민족대동단 실체를 파악한 후
 포위망을 압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총재 김가진은 10월 10일 상해로 망명을 단
 행하였다.

당시 상해임시정부가 이종욱(李鍾郁)을 서울로 파견하자, 나창헌은 거사 계획을 추진시켜
 나갔다. 박은식(朴殷植) 외 29인의 명의로 된 「대한독립선언서」를 사용하여 연합만세시위를
 일으키고자 했다. 전협은 이를 반대하고 국내인사로서 '민족대표' 구성을 요청하였다. '민


족대표 33인'은 의친왕을 비롯한 김가진·전협·양정(楊楨)·이신애(李信愛)·한기동(韓基東)·이정(李政) 등 단원 상당수가 포함되었다. 거사계획이 연기되는 가운데 학생·청년층 동원을 담당한 민강(閔樞)과 강매(姜邁) 등은 11월 1일 피체되었다. 더욱이 11월 10일 의친왕의 상행망명 결행도 일경에 포착되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단원 중 상당수는 차례로 체포되는 등 조직은 거의 궤멸상태나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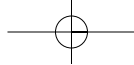
포위망을 피한 나창현·이신애·안교일(安敎一) 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이들은 음력 10월 3일(양력 11월 25일) 단군기념일에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이도 지연되는 등 결국 11월 28일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나창현 등은 종로 안국동 광장에서 선언서 200여 장을 살포한 후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당초 목표와 기대한 바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시민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요인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민족대동단 활동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 인사들

민족대동단 단원은 다양한 인물들로서 구성되었다. 관료·군인·학생·승려·간호사·보부상 등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대한제국기 관료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김가진은 대신을 지낸 노정객이었다. 그의 명망성은 다양한 인물을 단원으로 포섭하는 데 유효한 요인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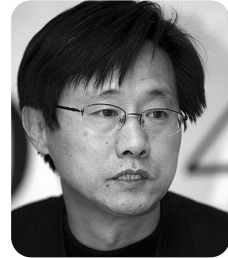
단체 결성을 사실상 주도한 전협이나 최익환은 일진회 주요 임원진으로 관료를 지낸 인물이었다. 이들은 국망(國亡) 전후한 시기에 중국 관내와 만주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모색하였다. 친일 경력은 현지에서 배척을 당하기 일쑤였다.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는 '최전선'인 현지 사정은 그들의 행동반경을 규제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수년간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였으나 국내에서 활동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3·1운동 직전 귀국한 이들은 대동단결을 통한 민족운동을 모색하였다. 민족대동단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역사적인 산물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사 정리와 청산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 장밋빛 미래는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단원 중 일부는 과오를 뉘우치고 민족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는 부분적이거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 용감한 행동이 아닐까. 총재인 김가진의 상해망명도 일제의 식민지배 실상을 폭로하는 '기폭제'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임시정부가 꿈꾼 문화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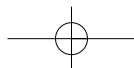


강내희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화연대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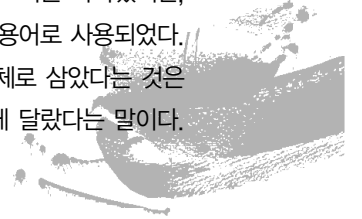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존의 정치체와 구분하고 있다. 임시헌장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여기서 새로운 국가의 주체로 등장한 ‘인민’은 과거 인민의 성격과 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민’(人民)은 지배집단을 의미하는 ‘인’(人)과 피지배집단을 의미하는 ‘민’(民)의 합성어이다. 대한민국의 주체로서 호명된 인민은 그렇다면 일단 민족구성원 전체를 가리킨다 하겠다. 하지만 ‘인민’을 해석할 때 임시헌장 제1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의 ‘인민’은 전근대와는 달리 당연히 ‘민’이 중심이 된 ‘인민’일 것이다.

‘인민’은 오늘 자주 쓰는 ‘국민’과는 다르다. ‘국민’이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호명된 주체라면 인민은 아래로부터 스스로 구성되는 주체에 가깝다. ‘인민’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적 주체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로서는 사라졌지만, 임시정부가 만든 문건에서는 ‘국민’보다 더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인민을 나라의 주체로 삼았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지향한 사회의 상이 오늘날과는 크게 달랐다는 말이다. 우리는 임시정부가 교육과 문화에 대해 지녔던 꿈을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임시정부가 꿈꾼 문화와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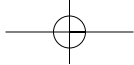
‘인민’은 오늘 자주 쓰는 ‘국민’과는 다르다.
 ‘국민’이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호명된 주체라면 인민은 아래로부터 스스로 구성되는 주체에 가깝다.
 ‘인민’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적 주체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로서는 사라졌지만,
 임시정부가 만든 문건에서는 ‘국민’보다 더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인민을 나라의 주체로 삼았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지향한 사회의 상이 오늘과는 크게 달랐다는 말이다.



먼저 임시정부는 어떤 교육관을 지녔는지 살펴보자. 임정의 교육관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권위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표방한 것과는 판이한 ‘삼균주의’ 관점을 표방했다. 임정의 핵심적 이론가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삼균과 정치와 경제와 교육에서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삼균을 지향했다. 임정의 교육은 바로 이 삼균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삼균주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인민의 삼대권리에 ‘학권’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인권은 통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범주화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UN)이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 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도 인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분류되어 있다. 임시정부가 건국원칙과 건국강령에서 채택한 ‘삼균제도’에서 학권을 주요 권리로 포함시킨 것은 따라서 특기할 만하다.

임정이 학권 또는 교육권을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와 더불어 인민의 삼대권리로 삼은 것은 조소앙의 영향이므로 그가 어떤 이유로 교육균등을 중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소앙은 1910년 12월 『대한흥학보』에 기고한 「갑신이후 열국대세의 변동을 논함」에서 20세기 초 한국이 얻은 사상계 상의 네 가지 좋은 영향으로 ‘교육의 진보’, ‘종교의 파급’, ‘청년학생의 향학성’, ‘유학생의 증가’를 꼽고 있는데 보다시피 세 가지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조소앙이 교육을 중시하고, 아울러 임정이 교육을 인민의 삼대 권리로 삼은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의 원칙으로 수용한 것은 정치와 경제의 역량과 아울러 교육 역량의 부족이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조소앙은 「한국독립당당의해석」에서 “본당은 이족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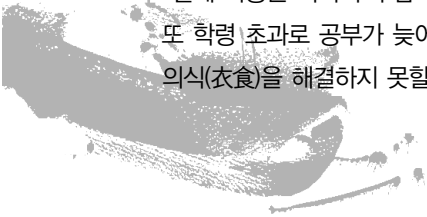
임시정부가 추구한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이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이라고 정해놓았다.

또 학령 초과로 공부가 늦어진 사람들에게는 면비 보습교육을 실시하고,

의식(衣食)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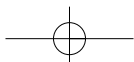


게 말살을 당한 문화를 다시 건설하며 국민의 생활기능을 배양하며 세계문화에 대하여 상당한 공헌을 하며 기립입인(己立立人)의 이상에 달하기 위하여 광복 후 국민교육에 주력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건국강령은 그다지 길지 않은 문건인데도 삼균주의에 대한 언급, 교육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한다. 복국(復國) 과정을 다루는 제2장 3조에서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라고 하며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건국 과정을 다루는 제3장 2조에서는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경제·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여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受學)이 완성되고”라고 하여 무상교육의 원칙을 언명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추구한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이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이라고 정해놓았다. 또 학령 초과로 공부가 늦어진 사람들에게는 면비 보습교육을 실시하고, 의식(衣食)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오늘날에도 실시하지 못하는 일체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교육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강령은 오늘의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고등교육은 오늘의 중등교육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삼균제도가 학력의 균등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력의 균등을 위해 토지의 국유화, 대생산기관·대기업의 국유화, 경제활동 자격과 기회의 균등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나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실제로 실시한, 대학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의 실시를 지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임시정부는 어떤 문화를 꿈꾸었을까? 먼저 1919년의 임시헌장에서 나오는 “인류의 문화와 평





▲ 임시정부가 꿈꾼 교육과 문화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염원과 맞닿아있다

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에서 ‘문화’는 인류가 지닌 어떤 이상적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목적으로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문화는 ‘평화’와 더불어 긍정적 의미를 지닌 듯싶고, 1910년대에 문화가 지녔던 ‘문명교화’, ‘문치교화’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다. 문화는 또한 ‘삶의 방식’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건국강령 제1장 1조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로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라고 했을 때의 ‘문화’가 그런 경우이다. 여기서 ‘문화’는 공통의 말과 글을 지닌 국토 위에서 행사된 정치(주권),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삶의 주요 차원을 나타내며, 다른 국토에 속한 문화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고유한 삶의 방식’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는 다른 사회적 실천들의 효과로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건국강령에 나오는 ‘문화수준’에서의 ‘문화’가 그런 경우이다. 제2장 3조에서 ‘문화’는 삼균제도에 입각한 헌법 시행으로 정치·경제·교육의 민주적 균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5조 4항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의 철폐로 나타는 평등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 종교, 언론, 저작, 출판 등의 자유는 임시정부가 꿈꾼 문화적 권리에 해당한다

효과로 이해된다. 이런 의미는 1919년 임시헌장에 나타난 문화의 긍정적 의미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삼균제도라는 사회적 제도 시행의 사후효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구체성과 물질성을 띤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사회 제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건국강령 제3장 5조 2항에서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으로 나타날 때의 ‘문화’는 다양한 사회 분야의 하나로 제시된다.

임시정부의 주요 문건들에는 꼭 ‘문화’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1919년 임시헌장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집회, 주소이전, 신체, 소유의 자유 등은 정치, 경제와 관련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교, 언론, 저작, 출판 등의 자유는 문화적 권리에 해당한다. 또한 1919년 9월의 임시헌법 제2장 8조에 명시된 ‘신교(信敎)의 자유’,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서신 비밀의 자유’ 등도 문화적 권리와 불가분한 자유이다. 이처럼 임시정부 문건들은 명확한 단어로 명시하지는 않으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관점들을 내놓고 있다.

문화는 크게 보면 ‘무(武)’와 구분되는 ‘문(文)’이며,
 그 자체로 긍정적 의미를 지닌 삶의 방식으로서 정치와 경제의 목표로서 이해되는 것 같다.
 임시정부가 꿈꾼 교육과 문화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염원과 맞닿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교육관도 문화의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정부가 교육권을 인민의 삼대 권리로 중시한 것 자체가 문화를 주로 교육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임정의 문건들에는 교육 이외에 종교, 언론, 저작, 출판 등에 관한 언급도 나오지만 삼균주의의 영향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언급이 대종을 이룬다. 따라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문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임정의 교육 중시 태도는 ‘사람과 사람의 균등’을 강조한 ‘협회의 삼균주의’ 틀 안에서 구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 균등의 삼대 요소인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삼항의 상호 관계망 속에서 설정되어 있다. 문화에 관한 임정의 태도, 염원을 이해하기 위해 이 맥락에서 눈여겨볼 점은 교육의 균등이 정치와 경제의 균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꿈은 이처럼 삼균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임시정부의 요인들 가운데 문화에 대한 기대를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백범 김구일 것이다. 『백범일지』 「나의 소원」 편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문화를 부강함과 구분한다. ‘문화의 힘’을 ‘부력’과 ‘강력’과는 다른 사회적 힘으로 파악한 것이다. 사회적 힘들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이다. 그런데 백범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력과 강력은 제한해야 한다고 본 반면 문화력은 한없이 키워야 할 가치로 파악했다. 아마도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무력 침략을 당하여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작용할 것이다. 문화는 크게 보면 ‘무(武)’와 구분되는 ‘문(文)’이며, 그 자체로 긍정적 의미를 지닌 삶의 방식으로서 정치와 경제의 목표로서 이해되는 것 같다.

임시정부가 꿈꾼 교육과 문화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염원과 맞닿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균주의 관점에서 본 ‘문화’도 이런 식으로 이해한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민의 삼대 권리로 상정된 경제, 정치, 교육의 권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상정되는 문화도 이들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목표처럼 이해된다. 학력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 권력과 부력의 균등이 필요하고, 학력의 균등이 이루어지면 등장하는 것이 흥익인간, 이화세계의 모습이며,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인 것이다. ㉞

나는 독립군가를 부를 때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



김건우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하는 독립정신 답사단을 알게 된 건 작년 6월이었다. 단과대학 게시판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답사 마감 하루 전에야 보게 되어 신청하지는 못하고, 이후 1년을 기다린 끝에, 인터넷 공지사항에 뜬 글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그 때 까지만 해도 내가 답사단의 일원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을 확인했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기뻐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과연 여기서 하는 답사가 믿을 만한가?', '중국에는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이라는데 과연 사업회에서 대책을 마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걸려온 사전 교육 안내 전화를 받은 후, 여기서 물어볼 요령으로 6월 29일에 열린 사전 교육 세미나에 참석

하였다.

그런데 세미나실에 첫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답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그리고 잠시 후부터 시작된 사전 설명회에서는 1기 답사팀의 기록 영상을 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소개와, 답사 사전 교육이 있었다. 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가 말끔히 해소됨과 동시에 '정말 여기에 잘 왔구나. 이제 마음 폭 놓고 열심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답사가 되도록 해야지.' 라고 생각하였다. 설명회 뒤에 이어진 '친교의 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전 교육 일정 중 가장 뜻 깊었던 시간은 (나중에 답사지에서)우리 답사단을 하나로 만들어준 독립군가를 배운 시간이었다. 나는 2005

년에 우연히 보게 된 “일제잔재 60년”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독립군가를 알게 되어, 그 날 바로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노래를 다운받았었다. 그 후 힘들 때마다 크라이닝 넷의 독립군가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그래서인지 사전 답사 때 독립군가를 다시 배우게 되었을 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짐짓 모르는 체 하며 함께 독립군가를 배웠다. 그러면서 새로 배우게 된 독립군가 마지막절의 ‘만세’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만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땐 ‘아직 답사를 가기 전이라서 독립 정신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거야.’라고 치부하고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후 조별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 비록 자료를 찾고 발표문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제까지 내가 소홀히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가 어땠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조원들과의 어색한 사이가 점차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드디어 7월 10일(출국 날) 아침 일찍(6시), 입으로 독립군가를 흥얼거리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버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하지만 예정 모임 시간보다는 빨리) 인천공항에 도착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타박 아닌 타박을 들어야만 했다. 공항에서는 인원 점검이 이루어진 후, 배급을 받고, 탑승 수속을 거쳐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는 장장 두어 시간을 날아서, 우리의 첫 목

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답사 첫 날 부터, 중국의 무덥고 습한 날씨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날씨는 답사가 끝날 때 까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지만 곧, 이런 날씨와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독립운동가 분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첫 답사지는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다. 평소에 ‘도전 골든벨’을 보면서, 언젠가 꼭 가 봐야지 하고 다짐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청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초라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원되어 있는 흔적들과 안내문을 보면서, 이러한 곳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어 갖은 노력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냈듯이, 우리 역시 여기서 첫 답사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다음으로 도착한 루쉰 공원(구 흥커우 공원) 내 매현루에서 5기 독립정신 답사단원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발대식에서는 답사 단원들의 경건한 의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날 밤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루어진 세미나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만들었다.

다음 날은 상하이로 떠나 난징(남경)으로 이동하였다. 난징에서 맨 먼저 들른 곳은 난징대학살 기념관이었다. 기념관 내 전시물을 통해, 대충이나마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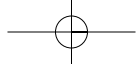


▲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일제의 침략이 비단 우리 민족 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수 많은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간 호가화원 터에서는 재개발을 위해 파괴된 폐허만을 보았다. 회장님은 '이 어딘가'에 가족들이 살았던 집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집의 위치조차 찾지 못한 채 버스에 올라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덩고 열악한 가운데서

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내심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낀 난징대학을 둘러 본 후, 숙소로 돌아왔다.

3일 째 되는 날에는 난징(남경)을 떠나 자싱(가흥)으로 갔다. 자싱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살았던 곳을 복원한 가옥과 김구 선생 피난처가 있었다. 김구 선생 피난처 뒤의 호수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배경 속에,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이 숙연해졌다. 그리고 요인 주거지가 잘못 복원이 되어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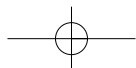
여기서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악비 가묘 앞에 진회 등 4명이 묶여 있는 동상 위에
 ‘침 뱉지 마시오.’ 라고 적힌 안내판이었다.
 나중에 신명식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악비는 죽어서 중국의 영웅이 되었고,
 악비를 팔아넘긴 진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침 뱉는 존재가 되었다.
 역사의 준엄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흥에서 항저우로 이동하면서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날 저녁식사에서 나온 ‘거지닭’ 과 ‘동과육’ 을 맛있게 먹고는, 악호에서 장예모감독이 만든 ‘인상서호’ 를 관람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에는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서 설명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어제 갔었던 악호 옆에 있는 악비묘(악비 장군사당)를 둘러보았다. 여기서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악비 가묘 앞에 진회 등 4명이 묶여 있는 동상 위에 ‘침 뱉지 마시오.’ 라고 적힌 안내판이었다. 나중에 신명식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악비는 죽어서 중국의 영웅이 되었고, 악비를 팔아넘긴 진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침 뱉는 존재가 되었다. 역사의 준엄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를 보면서 갑자기 광주 망월동 구 묘역에 파묻혀 있는 전두환 비

석이 생각났다.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간접적인 비유로 알려주신 거라 생각했다. 점심을 먹은 후, 의상대사가 머물렀다는 고려사를 보고, 항저우 동역으로 이동하여 몇 달 전부터 운행을 시작한 중국 고속철도(CRH)를 타고 창사(장사)로 이동하였다. 중국에서의 열차 이용은 기차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열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열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열차 안에서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른 중국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처음으로 중국인과 대화하는 거라 떨리긴 했지만, 서투른 중국어 실력을 내세워 대화를 하면서, 현지인과 말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일반 열차로는 3일 걸릴 거리를, 단 10시간 만에 도착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창사역에 내렸다. 답사 단원 모두가 땀과 피곤에 절어서 호텔로 향했다. 나는 호텔에 도착하여 씻고 눕자마자 바로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 날 오전에는 첫 날 저녁처럼 세미나가 있어서 다른 때 보다 폭 잔 후, 아침을 먹고 세미나실에



|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

이 날부터 이틀 동안 야간열차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약간은 설레면서도 ‘혹시라도 열차를 놓치거나, 열차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창(무창)까지 가서 에어컨 있는 객실 표를 구입’한 간부들의 노고를 듣고서는 그 동안 잊고 지냈던 간부들의 수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서 강의를 들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충칭 시기 까지 중국 대륙 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주제였다. 세 미나를 들으면서,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들이 잦은 분열과 통합을 거듭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가 틀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 꾸 나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호텔을 떠나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린 남목청을 둘러 보고 사진을 찍은 후, ‘장사사변’ 때 김구 선생이 입원했던 상아의원, 그리고 장사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남목청 임시정부 요인 주거지에서는 쓸쓸함과 아련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유령의 집과 같은 황망한 곳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소홀하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날부터 이틀 동안 야간열차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약간은 설레면서도 ‘혹시라도 열차를 놓치거나, 열차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

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창(무창)까지 가서 에어컨 있는 객실 표를 구입’한 간부들의 노고를 듣고서는 그 동안 잊고 지냈던 간부들의 수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열차에서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구아린(계림)역에 내렸다. 구아린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 때문에 종업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였다는 말에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조선의용군 본부가 있던 칠성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칠성공원에는 조선의용대에 관한 유적은 남아있지 않았으나, 중국인들이 보는 가운데 답사 단원들이 함께 독립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정신만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칠성공원을 둘러보면서 배경사진을 찍었다. 일부 단원들은 중국인들이 하는 체조를 따라하기도 했다. 칠성공원을 나와서, 중국 귀빈들이 반드시 둘러본다는 노적암 동굴을 관광하였다. 그 후 유저우(유주)에 있는 유후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유후공원 역시 관련 유적은 남아있지 않았고, 정자 하나만이 달랑 남아 있었는데, 그 앞 어디쯤에서 요인들이 사진을 찍었다는 설명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답사 장소인 유저우 임시정부 활동 진열관에서는 '1기 단원들이 쓴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으나,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전시실 내부의 조각상이나 그림도 '재중 조선인 동포' 라기보다 '중국 공산당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저우에서의 이러한 유적지들의 모습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이 때부터 우리가 간 대부분의 유적지가 터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못한 채, 비석조차 없는 유적지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암담함을 느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다음 날 답사지인 치장(기강)에서도 체험해야만 했다. 임강변에 위치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집터는 폐허로 남아있었고, 위치를 알리는 비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곳인 충칭(중경)으로 이동하였다. 충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충칭 시기의 임시 정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설명한 후, 미리 준비해 왔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건국강령에는 독립된 조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상이 적혀 있었다. 건국강령을 살펴보는 도중에 갑자기 해방 이후의 한반도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 꾸 나라가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우리를 태운 버스는 화상산 묘지에 도착하였다. 화상산 묘지에서 우리 모두는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체험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록 이사님께서서는 이곳에서 묻힌 후 유골조차 찾지 못한 어머니를 향해 눈물을 흘리셨고, 나머지 단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두 묵념을 올렸다. 일부 단원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묘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묵념할 때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것만 조용히 알려줬을 뿐, '길 건너편에 있을 거라 추정되는 무덤은 이미 예전에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사라졌을 텐데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 역시 가슴이 저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무덤을 찾아 뛰어다닌 단원들의 노력이 가산하였고, 난 그 발끝만치도 따라가지 못했다. 시간이 약간 지체된 채 다음 답사지인 손가화원으로 이동하였다. 장강의 광활한 물길이 보이는 가운데 손가화원 역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새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역시 임정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찾을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이 곳이 예전에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다.'는 설명만을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지막 답사 장소인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이동하였다. 버스에서 내린 후, 우리 모두 힘차게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단원들은 청사를 둘러보고, 추억에 남길 사진을 찍은 후, 1기 답사단처럼 계단에서 힘차게 독립군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때 부른 독립군가는 그 어느 때 보다 컸다. 나 역시 힘차게 독립군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만세를 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함께 해 온 답사를 통해서 독립운동가 분

| 답사단 기행문 우수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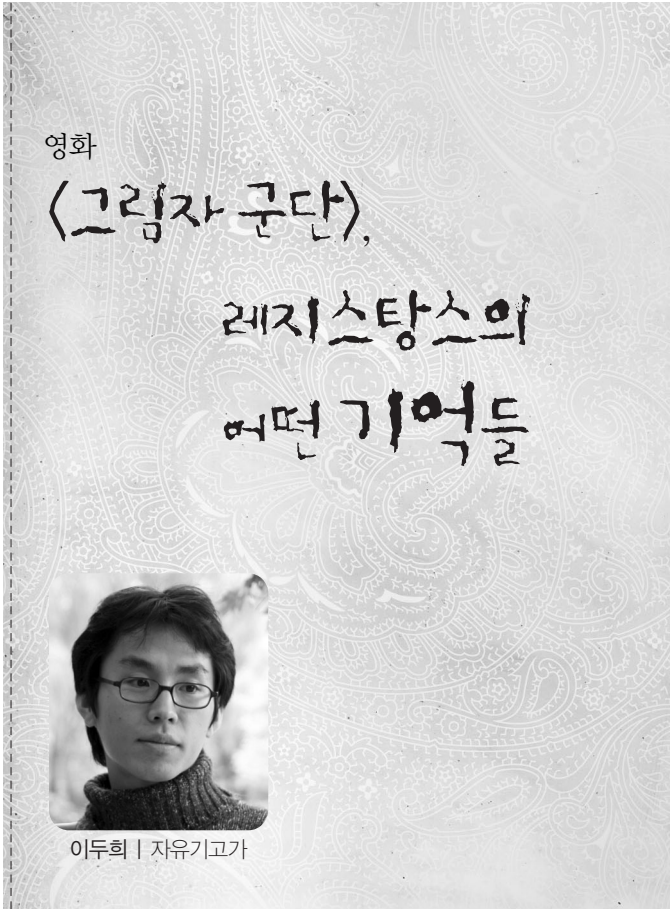
실제 임시정부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채,
방치되었거나 엉뚱하게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들의 고난과 역경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나 답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과연 잃었던 조국 강산을 회복하는 날이 왔을까? 그리고 만세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제헌절에, 충청 임시정부 청사에서 펼쳐진 감동의 물결 속에서도 나는 도저히 만세를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부를 때 몸은 만세를 외쳤지만 입 밖으로 만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완전히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물음이 떠올랐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모자를 집어 던졌다. 그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스스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과연 이 날 밤에 이루어진 ‘답사단의 밤’에서 함께 웃고 즐기며 노는 가운데 우리의 염원이 모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우리가 쓴 플래카드에는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해단식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임시정부의 이상이 그대로 심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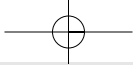
(Epilog) 이번 답사에서는 임시정부 유적지를 답사한 것과 세미나실에서 들은 강의 이외에도, 이동 시간과 식사 시간 중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나누고,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분명 이번 답사는 내 인생에서 큰 획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객지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들이 못 다 이룬 꿈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헌법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임시정부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채, 방치되었거나 엉뚱하게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일정에 비해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고, 더불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2006년 미국에서는 프랑스 영화감독 장 피에르 멜빌의 영화 <그림자 군단>의 복원판이 상영된다. 1969년 자국 프랑스에서 개봉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소개된 것이었다. 많은 미국의 영화저널들에서 그해의 영화로 손꼽히며 다시 주목받은 <그림자 군단>은 그러나 2차 대전당시의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경험에 대한 좀 더 오래되고 복잡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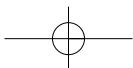
영화는 물론 나치 점령기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레지스탕스 조직의 대장인 필립 제르비에는 동료의 밀고로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된다. 가까스로 그 곳에서 탈출한 필립은 마르세이유에서 펠릭스, 황소, 마스크 등의 별명을 가진 동료들과 다시 합류한다. 그들의 총대장인 퍽과 함께 영국을 오가는 대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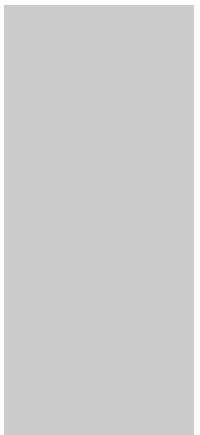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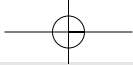


저항운동을 계속해나가는 그들은, 때로는 체포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동료들을 탈출시키거나 때로는 이들 사이의 배신자를 숙청하기도 하면서, 결국 그들 각자의 최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르세이유와 함께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의 수도 리옹에서 주로 펼쳐지는 이들의 이야기에는, 멜빌 감독 자신의 전쟁에 대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랑스가 기억하는 모습들이 있다. 사실 이 영화는 앞서 아직 전쟁 중이었던 1943년 쓰여진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그리고 소설과 함께 영화 속에서 철학교수이자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립은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다고 한다. 당시에는 물론 지식인으로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그리고 끝내 조국의 해방을 직접 보지 못했던 다른 인물들도 많았을 것이다. 일례로 H. 스튜어트 휴즈는 <막다른 길>이란 저서에는 역사가 블로크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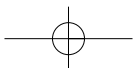
“1944년 봄 노르망디 상륙 바로 몇 주 전 게슈타포가 그를 체포했다. 그는 고문을 받았지만 자백을 거부했다. 6월 중순 그의 고문자들은 다른 26명과 더불어 그를 리옹 북쪽의 들판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모두 총살당했다. 블로크 옆에는 16세 된 소년이 떨고 있었다. ‘아프겠죠?’ 블로크는 그 소년을 다정하게 팔로 안고서 그에게 말했다. ‘아니란다. 꼬마야, 아프지 않아.’ 그리고 그는 쓰러지면서 맨 먼저 ‘프랑스 만세!’ 라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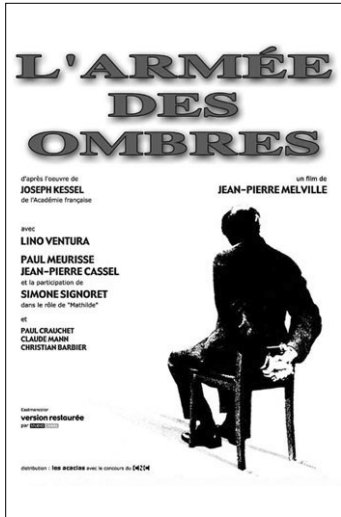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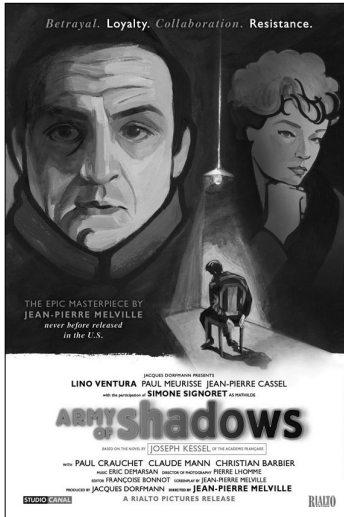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으로 영화 <그림자 군단>은 이러한 레지스탕스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재연하고만 있지는 않다. 이 영화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 없이 각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짙막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있다. 검문을 피하며 은밀히 지령을 전달하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헌신하며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내면에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더 많이 엿보이기도 한다. 어찌 보면 필립을 비롯한 그들 저항의 주체들은 전쟁으로 산산조각난 현실과 부재하는 미래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은 그 단절된 장면들을 특유의 비장함을 갖고 기록하고 있다.

인문학자 에리히 아우얼바하는 서양문학사를 이야기하며 예술작품에 있어서 역사적인 것과 전설적인 것을 분리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설과 달리 역사는 보다 다양하게 모순에 찬 채 혼란스럽게 진행된다. ‘일정한 영역에서 한정된 결과를 낳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결과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그 역사적 사건을 분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림자 군단>은 레지스탕스의 전설을 모순과 혼란의 형식 속에서 역사의 단편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영화에서 보이는 레지스탕스의 영웅주의와 연대의식은 때로는 그들의 고립감의 다른 표현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전쟁 당시의 그들의 입장이 고립무원의 그것과 같았으며 또한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60년대 말의 프랑스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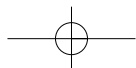


▲ 그림자 군단 포스터



전쟁이 끝나기 전에 모든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가졌던 꿈은 전후 새로운 프랑스에 대한 기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유럽에는 냉전체제가 드리워졌고, 이내 발발한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프랑스는 분열을 겪는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1969년은 프랑스의 사회의 혼란 속에서 파리의 학생운동이 그 정점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범죄 장르영화에서 탁월했던 감독의 어두운 스타일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그 아래 깔린 보다 깊은 염세주의 때문이었던지 결과적으로 <그림자 군단>은 당시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화였다. 물론 21세기에 미국에서 다시 소개된 영화는 내용보다는 그러한 스타일과 독특한 색깔로 인해서 더 주목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른다. 앞서 역사가 어떤 혼란으로서 기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대의 현실을 결과로 할 때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영화는 역시 지금 이 순간의 우리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취사선택되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록 같은 레지스탕스 영화는 아니지만 사실 멜빌 감독은 점령기의 프랑스를 다룬 또다른 영화 <바다의 침묵>(1947)을 통해서 데뷔했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영화로서 끌로드 샤브롤 감독의 <여자 이야기>(1988)는 비시 괴뢰정부 시절 프랑스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여성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고발하고 있는 영화다. (C)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예술성도 더해 바르고 좋은 공연으로
관객들과 길게 호흡하고 싶다.”

—극단 독립극장 원영애 대표

4호선 혜화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왼편에 학림다방이 보인다. 자그마한 크기의 카페 안에는 LP판이 진열되어 있고, 엔틱한 가구와 커피 볶는 향이 가득했다. 학림다방은 1956년부터 대학로에서 젊은이들과 예술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던 ‘존재하는 추억의 다방’이다. 학림다방에서 원영애 선생님을 기다리며 ‘선생님께서 이 곳에서 20여년을 지내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꿈을 꾸셨을까.’ 가을비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생각에 젖었다.



한 시간 반 남짓 원영애 선생님과 이야기 하면서 느낀 건 선생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연극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을 가지심이 분명했다. 이 ‘권력’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



조수정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상희
명지대학교 법학과

시키는 문화의 힘에서 나온다. 선생님은 이 힘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였다.

원영애 선생님과 임정(임시정부기념사업회)과의 인연은 ‘아아! 정정화’ 라는 연극에서 부터였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 연극은 정정화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녹두꽃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 받은 원영애 선생님께서 꾸민 것이였다. 이 연극을 통해 잊혀졌던, 아니 처음부터 알려지지조차 않았던 정정화라는 인물이 빛을 보게 되었다. 연극에서 정정화 역을 맡은 원영애 선생님은 연극을 하기 전 먼저 중국 상해를 다녀오셨다. 연극을 준비하던 97년에 IMF속에서도 여비를 마련해서 연출가, 작가와 함께 상해로 떠났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중국 땅을 밟아야 했죠. 건물이 생기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직접 느껴 봐야하지 않겠어요? 그 땅을 밟아서 느끼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아!정정화’ 는 성공적이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정정화라는 인물, 작은 독립운동가였던 그녀를 일제시대를 살았던 작지만 당찬 우리민족의 한 여인으로 남게 했다. 그 뿐 아니라, 원영애 선생은 정정화 선생님을 8월의 인물로 만들었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로 유관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할머니는 안될까?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조국을 위해서 타국에서 임시정부 어른들을 모시고, 자금을 위해 압록강을 넘었던 당찬 이 어르신은 광복절, 8월 15일이 있는 8월의 인물로 되어야했죠. 그래서 정정화 할머니를 국가보훈처에 8월의 인물로 신청했죠.”

정정화 할머니의 혼이 씩은 것 같은 그녀의 연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녀도 이제 우리가 편해졌는지, 편한 어투로 말을 이어 나갔다.

“나는 일본이 패망한 8월에, 우리의 광복을 노래하고 싶었지. 그래서 나는 일본 공연을 꼭 해야만 했어. 나의 타겟은 일본사람이었어. 당신네들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조선의 한 가녀린 여성은 독립운동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일본에서의 공연 또한 성공적이었다.

“연극이 끝나고 조총련의 한 사람이 와서 ‘공연 잘 봤습메다. 공연 감동적이었습메다. 평양에서 뵙고 싶습메다.’ 하며 악수를 청하는데 공연 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치색을 가지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연예술로서 문화로 접근해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미 원영애 선생은 문화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조선을 무단으로 침범했고, 조선을 무참히 짓밟았지만 현대에 사는 일본인들은 조선에 대한 연민은 털 끝 만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연극 속 ‘정정화’ 에게는 끝없는 연민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고, 원영애 선생님이 가진 힘이다.

그녀의 다음 연극은 세종에 대한 연극이었다. 세종, 한글에 대한 연극을 하게 된 동기는 조카들이 인터넷을 통해 나눈 글이 도통 이해되지 않는 기호와 문자였기 때문이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여민해락 정신으로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리다가 우리의 문자가 사라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지. 예술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으로 관객에게 좋은 문화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 했어”

이렇게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나’ 라는 작품은 시작되었다.

“공연예술로써 세종을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싶었지. 사실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듯이, 15세기부터 만들어진 늘 우리 곁에 있던 한글의 소중함을 진하게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정정화 역을 맡아 정정화 할머니의 혼이 씩은 것 같던 그녀는 이제 이 연극을 하다 보니 세종을 짝사랑하게 되었다.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

“세종이 15세기에 있던 인물이지만 사모하게 됐고, 이제는 맘이 설레는 거야.”

그녀의 다음 목표는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나’를 경복궁에서 창작 뮤지컬로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 이 연극을 역사적인 가치 뿐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로 성장시켜서 국가 브랜드화 시켜 국제적인 무대에 올리는 것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지켜 나가는 것.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를 채찍질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한 점이 되더라도 가치 있는 한 점이 되는 것. 이것이 독립정신 아니겠어?”

그녀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독립극장의 독립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말 그대로 스스로 올곧게 선다는 의미야. 연극도 이 시대에 맞는 자기의 의지와 정신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올곧아야 하지. 그 시선으로 바르게 공연해서 관객과 좋은 작품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독립극장이 말하는 독립이야.”

독립극단은 근현대사를 소재로 정정화, 일엽스님(신여성) 배정자(친일파, 이토히로부미의 수양딸이면서 첩생활 했던 조선여자/반면교사) 등을 공연예술로 풀어내었다.

어느새 10월의 가을비는 쌀쌀한 겨울을 남기고 그쳤다. 이제 우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학생들의 발랄한 끼와 생각들을 존경해. 하지만 그러한 끼와 생각들은 우리의 뿌리, 역사에서 기초해야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바탕에는 역사가 있고, 우리 것을 알았을 때 나오는 끼와 생각은 엄청난 것이거든. 역사를 통해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분들의 삶의 고락. 그 삶을 느끼고, 알면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원영애 선생님과 시시콜콜한 대학생할 이야기, 등산이야기, 애주 이야기까지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샌가 우리는 그 분에게 매료되고야 말았다. 그녀의 자신감, 그리고 꿈이 있어 지치지 않는 그녀는 그녀가 존경하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그녀에게 정정화 할머니의 혼이 씩은 걸까? 그보다 그녀는 점점 정정화 할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다. (C)



조정의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더불어 내년 3월 26일은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되며, 8월29일에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한다. 10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숨 가쁘게 전개된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던져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백범 선생님께 여쭙어 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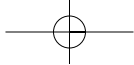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간, 선생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찾았다. 이날 오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행사가 열려서인지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행사 흔적들이 여기 저기 뒹굴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상과 어록비가 세워져 있는 기념관 앞뜰에서 안 의사의 동상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백범 선생을 만났다. 지난 2월과 6월, 경교장과 백범기념관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어서인지 선생님은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먼저 선생님께 오늘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감회를 여쭙었다. “오늘 기념행사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유족,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네, 이곳 광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지. 중근이를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혼의 표상이며, 세계평화를 일깨우는 등불’로 평가해 주

— 100년대를 걷고 —
— 타인의 역사를 타고 선명들과 만나다 —

백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VI)

학생편집위원회
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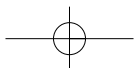
니 가슴이 뚫듯하더군. 그런데 웬지 마음이 공허하다네. 중근이가 처형 직전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야. 국권을 회복한지 64년이 지났는데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 하늘을 헤매고 있을 중근이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네. 하루빨리 중근이의 유해를 찾아 영혼을 모시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야...” 긴 한숨을 몰아쉬면서 멍하니 북녘 하늘을 응시하시는 선생님의 눈시울은 이내 붉어지셨다.

스스럼없이 안중근 의사를 ‘중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두 분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 선생님께 안중근 의사와의 인연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감회가 새로운 듯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약지가 잘린 안의사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국가안위 노심초사’ (國家安危 勞心焦思,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애태운다)라고 새겨진 어록비 쪽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 가셨다.

“중근이와 나는 고향이 황해도 해주로 같아. 그리고 내가 동학농민전쟁시에 팔봉접주로서 해주성 공격에 실패하고 도주하다가 신천군 청계동 안태훈 진사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이 안진사가 바로 안중근의사의 부친이었어. 안진사는 나를 극진히 대접했었지. 진사는 아들 셋 있었는데 맏아들이 중근으로 당년 열여섯 살로 나보다는 세 살 아래였어. 영기가 넘치고 사격술이 뛰어나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재주가 있었지. 그 후 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자 일본 경찰이 나를 잡아간 한 달간 감옥에 가두었어. 물론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지만 말이야. 그리고 중근이의 동생 정근과 공근은 임시정부에서 나와 함께 일하였지. 특히 정근의 딸 미생은 내 비서를 지냈고 후에 며느리로 삼았지. 이만하면 아주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라며 꺾꺾 웃으시면서 안중근 의사를 ‘중근’이라 호칭한 건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설명을 덧붙이셨다.

장소를 안중근의사기념관으로 옮겨 국화향기 그윽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 100년 전 오늘, 안중근 의사께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 의거에 대해 백범 선생님께서는 어떤 역사적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였다.

“안 의사의 하얼빈에서 올린 총성은 을사늑약, 정미7조약, 그리고 군대해산을 거쳐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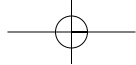


▲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영일 광복회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 및 안중근의사 유족들이 26일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가 망국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이 민족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지. 그리고 이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신간회, 광주학생운동, 윤봉길·이봉창 의거, 해외 독립군의 무장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불을 붙이는 단초가 되었다네. 내가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대원들에게 귀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였거든…”

일반적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무력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사형이 조기 집행되어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안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집필했던 ‘동양평화론’에 대한 백범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어 보았다.

“안 의사의 평가가 무력투쟁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야. 이는 사상가로서의 그에 대한 조명이 미흡했기 때문이지. 최근에 사상가로서 그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야. 그가 주창한 ‘동양평화론’은 당시 한·중·일 3개국이 각기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서구제국주의의 침략에 공동 대처하는 한편, 안으로는 3국이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책 이론서였지. 그의 ‘동양평화론’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정강에도 반영돼 있어. 또한 광복 후 만들어진 대한



민국 제헌헌법에도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이라는 구절 속에 담겨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네. 그리고 안 의사의 논리는 한·중·일 세 나라의 주권이 존중되는 속에서 동양평화가 가능하며 이는 21세기 남북한의 통일도 동북아의 평화와 연대라는 광범위한 흐름과 함께 가야한다는 역사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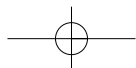
백범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의 구상 속에 싹뻗던 ‘동아시아공동체론’이 한 세기가 흐른 지금도 여물지 못하고 한 선각자의 사상으로부터 머물러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 어느덧 약속 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기념관을 나오는데 안중근 의사의 ‘조선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내가 대한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풍찬노숙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느니,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산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안중근 의사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광복을 맞이한 지도 60년이 훌쩍 흘렀건만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 인지 묻고 싶었다. 남산 기념관을 뒤로 하면서 동포에게 남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오늘따라 남산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노을이 더욱 붉게 느껴졌다. ☺



▲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신도시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동상 제막식에서 역사 어린이 100인 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고 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본회 제 10차 이사회 열려



지난 2009년 9월 21일(월) 저녁 6시 한국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본회의 열 번째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 5차년도(2009년) 사업보고와 회계감사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사업보고, 제 6차년도(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본회 임원진에도 변동이 있었다. 신임 부회장에 김정록(김상덕 선생 자), 이항중(이상룡 선생 증

손), 김호진(현 고려대 명예교수) 이상 3명, 신임 이사로 이규중(이진영 선생 자), 임종인(변호사), 김광림(국회의원), 이성현(국회의원), 정철승(변호사), 이일선(본회 사무처장)이상 6명, 신임 고문에는 김은진(안동 김씨 대종회 부회장)이 선임되었다.

이 날 이사회에는 본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23명(위임장 29명)이 참석했다.

독립정신 산악회 소식

지난 2009년 9월 26일(토) 창경궁과 종묘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산악회는 주세영 산악회장을 중심으로 산악회원들이 앞으로 산악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산행은 31일 부터 11월 1일 까지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사당에서 출발하여, 부여 일대와 은산 옥가실을 돌아보고 둘째 날 안면도 일대를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이번 산행을 통하여 고운 최치원선생의 난랑비 서문에 나오는 풍류도(風流道)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2009년도 본회 총회 열려



지난 2009년 10월 15일 (목) 본회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식전행사로 권호창(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대학원)군이 제작한 '제 5기 독립정신 답사단'을 주제로 한 특별 영상을 시청했다. 본 식에서는 본회

이사인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학민 답사단장의 독립정신답사 우수 기행문에 대한 시상도 있었으며, 답사보고서 발간 보고, 독립군가 제창등이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이일선 사무처장의 사회로 제 5차년 회계보고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사업보고, 6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신입 임원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참석했던 회원들은 식이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본회 창립 5주년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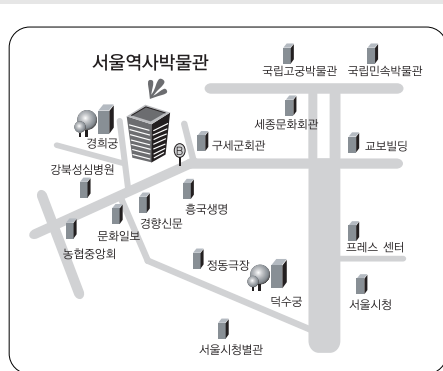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백범일지」 100권 기증

지난 9월 16일(수) 백범 김구 기념관으로부터 백범일지 100권을 기증받았다. 백범의 지고지순한 민족애와 헌신성으로 기록된 이 책은, 자신의 치적을 포장하고 허물과 과오를 덮으려는 술한 인사들의 자서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오늘날에도 빛 바래지 않는 감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책을 기증한 백범기념관의 홍소연 실장은 “이 책이 보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읽혀져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기증받은 책은 이번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원들에게 배부되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조선민족대동단 기의(起義) 9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열려

2009년 11월 27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조선민족대동단 기의 제90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올해 11월 28일 조선민족대동단 기의 9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이 행사는 1부 조선민족대동단 기의 제90주년 기념식이(사회 : 곽태원) 진행되며, 2부 학술세미나는 (사회 : 반병률 한국외국어대 교수) [삼일운동의 정치적 유산과 대동단의 승계]를 주제로 신복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조선민족대동단의 인적구성과 국가정체론]을 주제로 독립기념관의 김형목 연구관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연구관 이현주 박사와 수원대 박환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 3부 행사로 <동농 김가진전> 출판기념회가 준비되어 있다. 대동단 활동 관련 후손들과 본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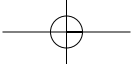
- 날 짜 : 2009년 11월 27일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연극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나> 단체 관람

지난 2009년 10월 9일(금)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주) 오토의 김선현 사장의 후원으로 연극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나>를 단체 관람했다. 본회 독립정신 답사단원 및 회원 40여 명이 참석 하였으며, 참석자 중 신유미 답사단원은 “한글날을 맞아 의미있는 연극을 보게 되어 참 좋았다. 한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극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는가>는 소설 <뿌리깊은 나무>를 원작으로 하였다. 연출에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등 연극적 상상에 기댄 스타일리쉬한 연출가 박승걸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제작사인 극단 독립극장 대표이자 본회 이사인 원영애씨가 1인 3역으로 연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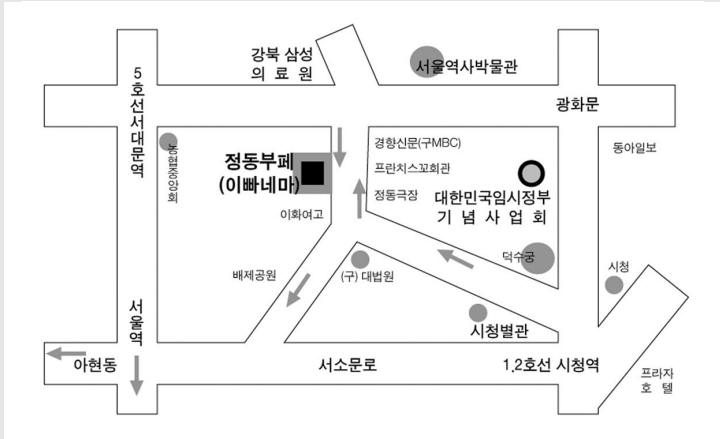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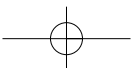


2009년 임정 '송년의 밤' 안내

2009년 12월 18일(금) 오후 6시 본회 송년회가 종로구 정동부페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회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만평





임정서가

백범학술원 총서 2

백범일지

백범일지

민족의 생명은 늘 젊다!
민족의 자서전은 늘 새롭다.
보다 큰 사상과 보다 큰 실천,
있을 때마다 요진히 새롭다!

白凡



逸志

백범 김구(金九) 자서전

백범학술원 총서 ②

나남

백범학술원이 펴낸 ‘백범학술원’ 총서 둘째 권. 백범 김구 선생의 해방 이후 기록까지를 포함한 <백범일지> 완본이 처음으로 발간된 것으로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질풍노도의 청년기, 식민지의 시련과 망명, 상해 임시정부 시절과 해방을 거쳐 조국에 돌아와 활동하기 까지 파란만장했던 삶과 사상, 나라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중에서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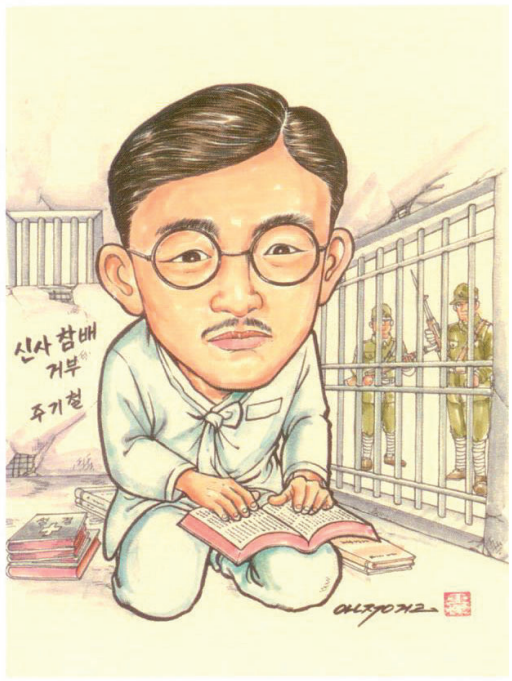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9,10월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공성진	30,000	3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규중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병운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권순갑	20,000	20,000	노용래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경진	5,000	5,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석희	100,000	10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박두근	10,000	10,000	이성배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광재	5,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신재	30,000	30,000	최문순		10,000
김동완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영국	10,000	10,000	최영진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박인란	30,000	30,000	이영춘	30,000	30,000	최인국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박창기		100,000	이용규	10,000		최정호	10,000	10,000
김성근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원혁	100,000	10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숙정	50,000	5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용국	5,000	5,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영림	30,000	3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말선	30,000	30,000	황용만	5,000	5,000
김용덕	10,000	10,000	서영훈		30,000	이재선	5,000	5,000			
김원규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이정재		50,000			
김원수	20,000	20,000	송재웅	30,000	30,000	이종락	30,000	30,000			
김원유	50,000	50,000	신영연	10,000	10,000	이학효		10,000			
김 위	20,000	20,000	신준수	20,000	20,000	이항중	30,000	30,000	◆ 특별회비		
김위현	50,000	50,000	심재권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회원명	9월	10월
김자동	100,000	100,000	안영찬	5,000	5,000	이화순	30,000	30,000	곽태원		300,000
김재홍	10,000	10,000	양기홍	5,000	5,000	인순창	30,000	30,000	(주)아백철강	2,000,000	2,000,000
김정욱	50,000	50,000	엄근학	10,000	10,000	장은기	20,000	20,000	(주)오토	6,000,000	6,000,000
김중배		20,000	엄기남	50,000	50,000	장팔순	10,000	10,000	총회모금합		130,000
김중숙	10,000	10,000	엄기창	10,000		장홍	20,000	20,000			
김진경	5,000	5,000	오승숙	10,000	1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진모	20,000	20,000	오은주	20,000	20,000	정만기	30,000	30,000	◆ 기념관 회비납부		
김진영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정환기	10,000	10,000	회원명	9월	10월
김진현	50,000	50,000	이상호	30,000	30,000	조기식	20,000	10,000	이창복	1,000,000	
김중환	5,000	5,000	원영애		30,000	조명숙	10,000	1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효진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조용환	30,000	30,000			

항일과 친일

순교와 배교 - 진정한 믿음과 위선자의 신앙

항일



주기철 (1897~1944)



웅천(현재 진해시 웅천동)에서 교남 학회를 창설, 교육진흥과 애국사상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삼일운동에 마을대표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5년 평양신학교 졸업 후 1931년까지 부산 초량교회 위임 목사로 재임하던 중,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장로교 노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1936년 7월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하였다. 1938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시켰지만 이에 불복하여 궁성오배와 신사참배를 거절하였고, 1939년 의성농우회사건에 관계되어 7개월간 구금되었다. 출옥 후 산정현교회로 돌아와서 '5가지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고 설교하여 이튿날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러자 평양 임시노회는 그를 목사직에서 파면할 것을 결의하고 1940년 3월 산정현교회당도 폐쇄하고 말았다. 이어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10년 형을 언도받았고 1944년 4월, 복역 중 순교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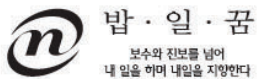
친일

김길창 (1892~1977)



192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창과 부산 동경 등지에서 장로교 목사로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1933년 부산 향서교회에 부임하여 죽을 때까지 재직했다. 193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는데 이 때 그는 총회 부회장을 맡아 각 노회 대표에게 가결을 종용하였고 총회가 끝난 후 각 노회장을 이끌고 평양 신사를 참배하였다. 그해 12월 그를 비롯한 기독교계 지도자 5명이 일본에 건너가 이세(伊勢)신궁, 야스쿠니 신궁 등을 참배했다. 이후 일본 기독교조선장로교단 경남교구장 등을 지내면서 경남 장로교계의 황민화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친일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적산(敵産) 불하과정에서 수완을 발휘하여 남성여중고와 부산신학교를 설립했으며, 부산기독교연합회 회장 등을 지내면서 경남기독교계의 실력자로 군림하였다.





일간 석간 **내일신문** 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을 독자로 모십니다!

- 일간 내일신문은 정치경제에 강한 새로운 석간신문입니다.
- 석간 내일신문은 「강남·서초·송파 내일신문」을 비롯 46개지역 24개 지역신문의 본지(本紙)입니다.
- 석간 내일신문은 자매지로 **대학내일**(대학생 대상 발행부수 1위, 열독률 1위)과 **미즈내일**(주부대상 주간지)이 있습니다.
- (주)내일신문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며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드문 신문사입니다.
- (주)내일신문은 2000년이후 매년 15~25%의 주식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 : 월1만3천원, 년13만원 / 구독신청 : 080-850-0041